

어린이 책꽂이

▲시장에 간 암소=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작품을 골라 그림책으로 엮었다.



덴마크 출신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요하네스 안센의 단편소설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동물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안그라픽스·9천원〉

▲날으실 제 괴물도 다 잊으시고=불교의 경전 '부모은중경'을 어린이와 어른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작품이다. 아버지의 사람이 깊고 높음을 뜻하는 '부모은중경'은 종교를 초월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사계절·1만1천원)

▲올리버=잡자리에서 아이들이 게 읽어주기에 좋은 동화다. 방 안에서 우주 주로, 우주에서 다시 방안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이야기 구조가 조용한 분위기의 그림과 잘 어울려 있다.



〈작은 책방·8천900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생생한 사진과 그림으로 떠나는 세계 문명여행 시리즈,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흥미로운 이야기와 현대인의 왕조사가 수록돼 있다.



〈청솔·8천500원〉

▲병원에 간 명탐정 홀스=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명탐정 홀스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풀어간다. 사건을 하나 하나 해결해가는 홀스를 통해 어린이들은 어려운 의학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니어 김영사·1만원〉

18~19C 여성들도 주체적인 삶 살았다

누가 나를 조선... 임해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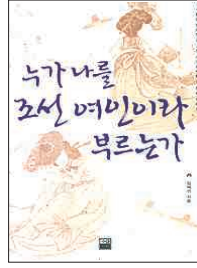
최근 한국은행이 2009년 5만원·10만원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지폐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구, 신사임당, 방정환, 장영실 등 역사 속 인물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만덕'이라는 다소 낯선 여인의 이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1796년 기생 출신인 제주의 김만덕(1739~1812)은 정조의 부름을 받는다. 천한 신분인 여인이 어떻게 하듯 같은 임금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재물을 풀어서 굶주린 제주 백성 1천명을 살렸고 조정은 그에 감탄, '소원'을 묻는다. 당시 제주도민은 육지로 나가는 것이 극도로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양 땅을 밟는 게 소원'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결국 정조를 대면하게 된다.

역사를 주제로 다양한 글을 써온 임해리씨가 펴낸 '누가 나를 조선 여인이라 부르는가'는 김만덕 등 남성 중심 신분제 사회라는 질곡 속에서 꿈을 열정을 잃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9명의 여성에 대한 기록이다. 신사임당, 허난설헌 등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 대신 역사 속에 숨겨졌던 인물들을 조명하는 게 특징이다.

11세때 양친을 잃고 관기가 된 김만덕은 이후 객주를 차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재에 밝았던 그녀는 곧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돈만 알았던 '부자'들과는 달랐다. 조선 후기 가장 큰 문제는 기근이다. 특히 육지에서 떨어진 제주도의 경우 가뭄이 들면 속수무책이었다. 정조 19년 봄 쌀을 싣고 제주도로 온 배가 침몰, 2천여석이 물이 잠기자 김만덕은 평생 모은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사오게 해 제주도민 1천여명을 먹여 살렸다. 오늘날 부자들이 모범을 삼을만하다.

18세기 들어서면서 열풍처럼 번졌던 게 사대부의



금강산 유람이었다. 여성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때 김금원(1817~?)은 14세의 나이로 남장을 하고 관동팔경을 유람하며 뛰어난 시와 유람기를 남기는 등 필력을 자랑한다. 그녀는 또 조선 최초로 여성 시인 중심의 시사(詩社)를 '삼호정시사'를 만들어 남성들처럼 활발한 문단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남성중심 신분제 속에서 꿈·열정 펼친 9명 이야기



김만덕 초상화.



남자현 지사의 항일 순국비.

여성·가족 생존의 험벗고 쓰러린 애환 담겨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김승희 지음

광주 출신 시인 김승희(55·서강대 교수)씨가 화가 김점선씨의 그림이 어우러진 산문집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를 출간했다. 지난 2003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김승희씨가 김점선씨의 그림과 함께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산문 30편에 자신의 시 32편을 곁들이고, 새로운 산문 1편을 더 넣었다. 7년째 투병 중인 남편을 지키고 있는 김승희씨는 "새로 부딪치게 된 '여성 생존'이라는 험벗은 존재의 험겨운 문제와 '가족 생존'이라는 애환의 풍경이 쓰러리게 담겨" 있다고 말한다. 일상을 통찰하는 시인의 날카롭고도 따뜻한 시선이 글에 묻어난다. 글 속에 등장하는 여러 군상들은 지은이 본인이기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김승희씨가 여기하는 '그래도'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괴물이나 삶을 놓지 않고 울부짖으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따스한 마음이 사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낸 김승희씨가 '그래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랑'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마음산책·1만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세계 21개국 38개 공동체 마을 이야기

사람에게 가는 길 김병수 지음

유기농업가이자 농촌공동체운동가인 김병수씨가 3년 동안 세계 21개국 38개의 공동체 마을을 탐방한 느낌을 적어 여행기를 출간했다.



'사람에게 가는 길'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채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공동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다. 저자는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우리'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온몸으로 체험한다.

알코올 및 마약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휴메니버서티', 이상적 노동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의 '트윈옥스', 근본주의 기독교 공동체인 영국의 '부터더호프', 자폐아동을 치료하는 멕시코의 '로스 오로피네스' 등 저자가 다녀온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연과의 공존을 꾀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저자는 "아마존 밀림 속 세오 마피아 마을에서의 한 달 경험은 '자유'와 '조화'라는 단어가 이러한 꿈 속의 추상적 단어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마음의숲·1만2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스티븐 코비 '원칙 중심의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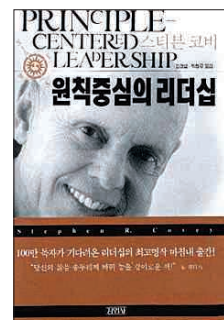
대인관계와 자기개발에는 왕도(王道)가 없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조직생활이나 대인관계는 우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루 하루 생활에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배우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생활화하여 서비스 지향적인 원칙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시대에 사람이 경쟁력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인재의 양성과 기술력이 곧 경쟁력이며 국력의 것이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은 원칙 중심의 인재관리가 선행되어야만 조직이 발전하고 개인의 삶 또한 중요로 될 수 있다.

세계적 리더십 권위자인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의 리더십'(김영사)은 우리의 삶과 관계하고 있는 조직 속에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 빠르고, 쉽고, 자유롭고, 재미있는 접근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농사의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

농사의 법칙은 수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작물이 자라서 성숙하기까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 주고, 물을 주어 자라도록 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다 거쳐야만 한 알의 곡식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

'농사의 법칙' 배워라



럼 우리의 개인적 삶이나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 모든 사회생활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 중심의 순리를 지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원칙들은 항상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판과 같고, 나침판은 일정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타당성 있는 자연법칙이다. 원칙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므로 원칙 중심의 리더십 자연법칙의 기초 위에서 '씨앗과 토양'을 가지고 농장에서 일할 줄 아는 성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 관계와 조직에 바탕이 되는 원칙이란 공정성과 형평성, 정의, 성실, 신뢰를 바탕으로한 인간사회의 기본원칙으로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 중심의 리더는 원칙을 자신의 개인적 삶은 물론 대인관계 및 자기가 체결하는 모든 약속과 계약, 관리하는 조직 전 과정의 중심에 놓고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조직원들과 개인의 삶에서도 농사의 법칙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물을 주며 잡초를 뽑아 주고 수확하는 '농사의 법칙'이 적용된다. 거기에는 임시방편의 응급처방이나 즉각적인 성공 공식이 없다. 어린아이가 뒤집고, 앉고, 기어다니는 것을 익힌 다음 비로서 걷고 달리는 것을 배우는 것 처럼 어느 한 단계라도 건너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하기 전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다. 서로의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리더와 조직원 간에 농사의 법칙에 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通)하라! 통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조직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의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류인섭 (전남도 농업기술원장)



Modish Gallery Open Sale advertisement featuring furniture and home decor item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Dume Food advertisement for Kimchi and food products, highlighting 15 years of experience and quality.